선진미술관서 배운다 유럽편

〈22〉 오스트리아 빈 미술관 지구

미술관 3곳·박물관·공연장…6만㎡ '문화 놀이공원'

빈=정상필 EU특파원

레이폴트·현대·어린이 미술관
매년 관람객 200만명 이상 찾아
영화 상영에 음악·무용 공연도

오스트리아 수도 빈(Wien)의 구도심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걸으면 거대한 바로크식 건물이 나온다. 너비가 100 미터를 훌쩍 넘는 이곳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복합문화센터, 미술관 지구(MuseumsQuartier)다. 건물 중간의 메인 출입구를 통과하면 미술관에 둘러싸인 널찍한 광장이 나온다. 현대미술관을 비롯한 40곳의 크고 작은 예술관련 기관들이 입주해 있는 미술관 지구의 규모는 6만 ㎡(1만8천여평)에 달한다.

오스트리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문화 프로젝트로 조성된 미술관 지구는 18세기 초반 합스부르그가(家)의 황제 카를 6세(Karl VI·1685~1740)가 건설한 황실용 마구간에 들어서 있다. 1980년부터 1986년까지 이곳의 쓰임새에 대해 논의를 벌인 끝에 '현대미술관'이 포함된 '미술관 지구'로의 리모델링이 결정됐다. 총 20억 오스트리아 실링(약 2천600억원)의 공사비 중 80%를 국가가, 20%를 빈 시가 부담했다.

2001년 문을 연 이래 매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가고 있다. 첫 해에 미술관 관람객이 110만 명이었고, 미술관 지구 전체를 통틀어 270만 명이 이곳을 방문했다. 이곳에는 오스트리아 화가 에곤 실레의 작품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레오폴트 미술관, 국립 현대미술관, 어린이 미술관, 건축 박물관, 연극과 무용 공연장, 미디어 상영관, 특별 전시관, 카페와 레스토랑 등이 있다. 문화를 테마로 한 놀이공원과도 같다.

◇레오폴트 미술관(Leopold Museum)

연간 평균 관람객 30만명으로 미술관 지구 내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곳이다. 무엇보다 레오폴트 미술관의 자랑은 요절한 천재 화가 에곤 실레(Egon Schiele·1890~1918)다. 그의 인기가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무엇보다 그가 오스트리아 국민화가 클림트의 수제자였다는 점에 있다. 에곤 실레의 '자화상'이나 클림트의 '삶과 죽음' 등이 주요 소장품으로 꼽힌다.

미술관 명칭 '레오폴트'는 오스트리아 황제(레오폴트 1세)의 이름이 아니라 현재 레오폴트 미술관 관장이기도 한 수집가의 이름이다. 루돌프 레오폴트(Rudolf Leopold·84)는 의사인 자신의 본업보다 미술품 수집에 더 열을 올려 5천점이 넘는 소장품을 지니게 됐다. 그는 특히 에곤 실레에 큰 관심을 갖고 그의 작품을 사들였다. 독일과 스위스 등에서 특별전을 여는 등 에곤 실레가 유명해진 데는 루돌트 레오폴트의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

1994년 오스트리아 정부와 은행의 도움으로 그의 소장품을 관리할 재단이 세워졌다. 오스트리아 출신 화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그의 소장품 5천266점의 가치는 무려 5억7천500만 유로(약 1조원)였다. 1만2천900 ㎡(3천900여평) 규모의 미술관은 미술관 지구가 개관한 2001년 처음으로 대중에게 선보였다. 현대미술관과 함께 바로크식 건물인 미술관 지구에 들어선 유이(唯二)한 현대식 건물이다.

◇현대미술관(MUMOK·Museum Moderner Kunst Stiftung Ludwig Wien)

미술관 지구 내 메인 광장을 사이에 두고 레오폴트 미술관의 건너편에 위치해 있다. 외벽의 색이 짙은 회색이어서 흰색을 띤 레오폴트 미술관과 대비를 이룬다. 현대미술관에는 팝 아트와 포토 리얼리즘, 플럭서스(Fluxus), 누보 레알리즘 등 20세기 중반 이후 작품들을 주로 전시하고 있다. '모든 감각을 위한 음악'을 주제로 한 한국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의 특별전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열리기도 했다.

미술관 명칭을 풀어쓰면 '빈 루드비히 재단 현대 미술관' 쯤 된다. 미술관의 소장품이 '루드비히 재단(Stiftung Ludwig)'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 현대미술 수집가 피터 루드비히(Peter Ludwig·1925~1996)의 재단이 설립된 것은 1981년이고, 그의 소장품 전체가 국가에 기증된 1991년 현대미술관의 명칭에 재단의 이름이 들어가게 됐다. 1962년 설립돼 '20세기 하우스(20er haus)'에 입주해 있던 현대미술관은 2001년 미술관 지구로 새 둥지를 마련해 옮겼다.

미술관 지구에 들어선 1만4천 ㎡(4천200여평) 규모의 현대미술관에는 매년 15만명 가량의 관람객이 다녀간다. 전시공간만 5천400 ㎡(1천600여평)로, 오스트리아 화가 코코슈카(Oskar Kokoschka)에서 미국인 사진작가 맨 레이(Man Ray), 독일 화가 막스 에른스트(Max Ernst), 행동주의자인 헤르만 니츄(Hermann Nitsch) 등의 작품 7천여점이 있다.

◇어린이 미술관(ZOOM Kindermuseum)

비엔나 시내에 있던 어린이 미술관이 2001년 이곳으로 이사했다. 레오폴트 미술관의 뒤편에 위치해 있다. 미술관은 어린이 전용 미술관으로는 오스트리아 최초로 1994년 문을 열었다. '놀면서 배운다'를 모토로 미술관에서 진행할 수 있는 모든 어린이·청소년 관련 문화 프로그램들이 집대성돼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독립 기관이되 교육청 등의 지원을 받아 콘텐츠가 탄탄하다. 예산의 60%는 빈 시에서 부담하고, 40%는 각종 후원과 티켓 판매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매년 10만명 가량이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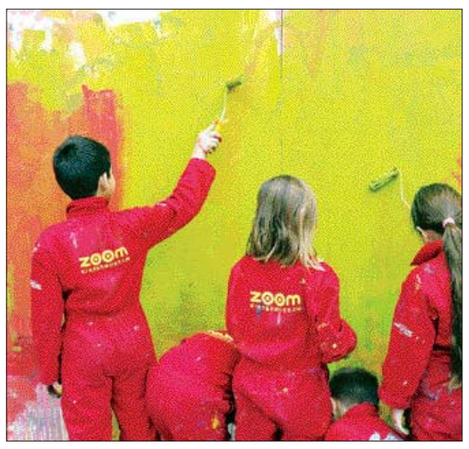
3세에서 12세 사이의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스튜디오'는 일종의 워크숍 기능을 한다. 어린이들은 물감, 종이, 나무, 페인트 등 여러 미술의 재료들을 이용하고 다루는 기술을 배운다. 모자이크, 페인팅, 프린팅 등 주제별로 프로그램이 나뉘어 있다. 교사들은 어린이들이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조각이란 무엇인가, 우주인은 우주에서 어떻게 잠을 잘까, 음악과 수학의 공통점은 뭘까 등을 주제로 한 전시들이 이뤄진다. 6세에서 12세를 대상으로 한 이들 전시에는 전문가들이 상세한 설명을 곁들인다. 8세~14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랩(Lab)'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술들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이다. 만화영화나 3D 기법의 원리를 배우고 직접 제작하는 시간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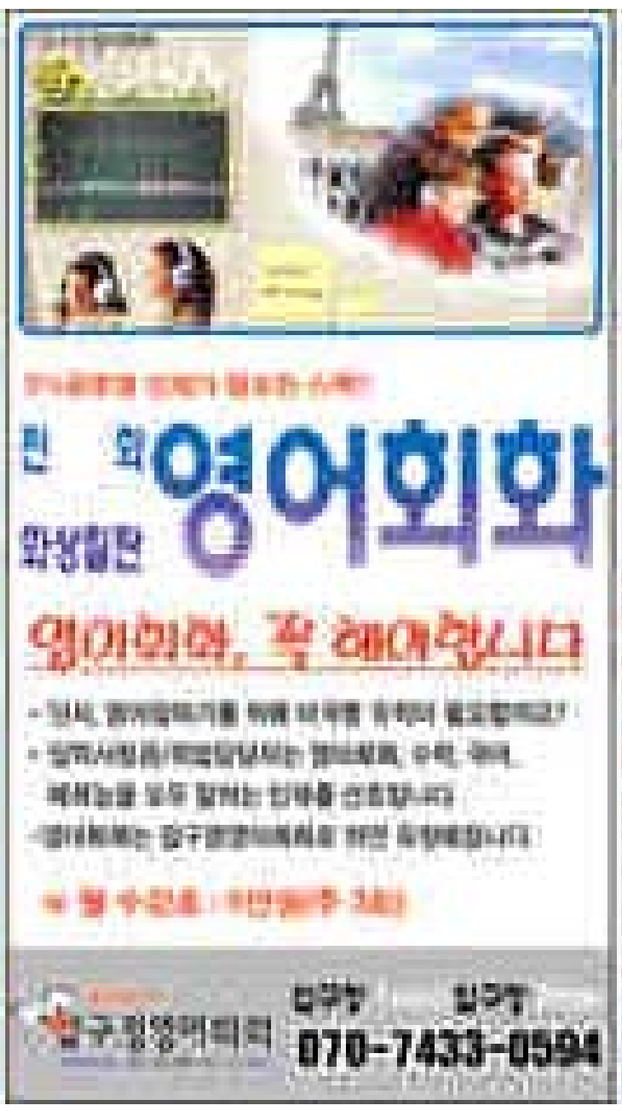
◇기타

미술관은 아니지만 미술관 지구 내의 효자 건물이 음악 공연과 영화 상영, 연극 및 무용 공연이 이뤄지는 할레 E+G(Halle E+G)다. 주 출입구를 통과해 미술관 지구로 들어서면 정면에 있는 건물이다. 매년 20만~30만명이 찾는 이곳에서는 빈 무용단 공연 등이 정기로 이뤄지고 있다. 이 밖에 미술작품의 특별전시만 하는 쿤스트할레(Kunsthalle), 오스트리아 건축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건축 박물관(Architekturzentrum Wien) 등이 있다. /camus@kwangju.co.kr

오스트리아 빈의 미술관 지구 내 메인 광장. 미술관 지구에는 미술관 등 크고 작은 40개 예술기관이 들어선 복합문화공간이다.



어린이 미술관의 프로그램 '스튜디오'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벽에 페인트칠을 하고 있다.

레오폴트 미술관. 오스트리아 대표화가 에곤 실레의 작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다.

빈 현대미술관 전경. 이곳에는 팝아트 등 20세기 중반 이후의 현대미술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